

전남 동물복지 축산 1호 화순 다슬농장 유정란 고소득 비결

15000㎡ 방사장·무항생제 사육 '황금알' 낳아

보통 계란 가격의 3~4배... 연소득 2억원

자연 방사 형태의 동물복지 축산으로 산란계(産卵雞)를 길러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화순군 남면 모후산 자락에서 산란계 농가를 운영하는 민석기(52·다슬농장 대표)씨. 민씨의 닭 농장은 울타리 속에 움푹달라 못하게 갈아서 알만 낳는 여느 닭농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깨끗하면서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1만5000여㎡의 운동장이 닭장이다. 이곳에서 산란계 7000마리가 뛰어나다며 하루에 4500여개의 알을 낳는다. 탁 트인 방사장에서 닭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다 보니 낳은 알은 모두 유정란이다.

사육 과정에서 일손도 많이 들고 무항생제를 고집하다 보니 면역력을 높이는 친환경 첨가제를 먹이는 등 사양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민씨는 지난 2000년 귀농한 이후부터 동물복지 축산을 지켜왔다. 첫째 병아리 500마리도 시작한 축산은 기술력 부족에다 판로마저 여의치 않아 큰 어려움에 빠졌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보통 달걀보다 3~4배 높은 개당 420원을 받는다. 친환경

농축산물만 취급하는 한마을 공동체와 화사농장 등에 출하하는데 연간 소득이 2억원 이상이다. 민씨는 지난달 전남지역 제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는 산란계 자연방사 사육을 희망하는 많은 축산 예비농에게 전도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민씨는 "복지형 축산이 일반 축산보다 몇 배 더 힘이 들지만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판로망을 개척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것이 고소득 비결"이라고 말했다.



자연상태에서 방사돼 사육되고 있는 다슬농장의 닭.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다슬농장처럼 전남 전체의 자연 이점을 극대화해 햇볕,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기, 방풍림 및 기능성 나무 식재, 가축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녹색축산 농가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존 축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친환경으로 빛은 '모시잎 송편' 인기

영광 특산물... 작년비 10%이상 매출 증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영광의 특산물인 '모시잎 송편'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영광 지역 '모시잎 송편' 제조 업체마다 매일 100통이 넘는 주문 전화가 밀려오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추석에 비해 1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25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광 '모시잎 송편'은 친환경 쌀과 모시잎을 함께 반죽하고 반달모양으로 빚은 뒤 동부라는 살구색 콩을 넣어 만든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부터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모시잎 송편'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웰빙 식품 바람이 불면서 3년 전 35개이던 송편 제조업체는 현재 115개로 늘어났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시잎 송편'은 섬유질,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건



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전통 송편 맛에다 모시잎의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 선물용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강진군, 한우산업 선진화 이끈다

고급육 생산 위한 친환경 축산 실천

강진군이 한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한우산업의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4일 새벽 가족시장을 방문해 한우농가와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전국 최고의 한우생산기지건설'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사료의 자급을 향상에 의한 생산비 절감 ▲형질개량에 의한 고급육 생산 ▲유통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료 자급을 향상 위해 내년에 군 동면 지역에 조사료 생산특구 600ha를 조성하고, 조사료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또 조사

료 생산장비와 완전 혼합사료(TMR) 배합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급육 생산방안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 사업과 각종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무엇보다도 육질개선을 위한 형질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축협과 힘을 합쳐 한우등록 사업과 우수 유전자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지만 한우사육 농가에서도 철저한 개체관리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목포·고흥·해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목포시와 고흥군, 해남군 등 도내 3개 시·군 보건소가 최근 질병관리본부 주최의 '2011년도 국가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다.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보건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결핵조기퇴치 뉴(New) 2020계획'에 따라 수행한 사업성과를 ▲결핵환자 발견사업 ▲환자관리 및 치료 ▲결핵예방 ▲자체사업 등 4개영역 17개 지표 항목으로 실시됐다. 목포시는 결핵예방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 신규 국가결핵관리사업 설명회 (21개소 관내 의료기관) 개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결핵검진사업 추진(100명),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로 관내 의료기관에 등록된 모든 결핵환자(975명)에 대해 완치시까지 관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흥군은 접촉자 검진율, 결핵치료 성공률, 역학조사 신속성, 민간·공공 협력사업 병의원 참여율, 입원 명령 실시율 및 완수율 등 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 역시 등록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100%를 달성하고, 민간 병·의원 치료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와 사후관리 등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호평을 받았다. /중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ju@ /서부취재본부=임영춘·박희경기자 dia@

KTX 타고 목포역사·문화 여행 가요

市-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MOU

목포시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본부장 황승순)는 오는 28일 호남선 철도여행객과 단체 고객을 목포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시는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서·남해안으로의 관광객을 유치 위한 실마리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는 호남선 관광객 활성화를 통한 철도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측은 ▲서울역·용산역사내에 목포시 관광홍보물 고정비치장소 무료제공 ▲용산역에 목포시 관광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상시 비치 ▲코레일 산하 전역사에 목포시 관광홍보물 비치 ▲목포시 역사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이용한 KTX 여행상품 개발 ▲서울본부 산하 80개 협력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 공동운영 및 지원에 나선다. 목포시 측은 상품개발, 협력업체 여행상품 기획 및 현지 행사진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정종득 시장은 "이번 협약식은 남해안권 철도관광객 유치 마케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대표 교통수단인 철도산업과 목포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화순 향교 3곳, 석전대제 봉행 화순군 3개 향교(화순향교·능주향교·동북향교)는 지난 23일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향교)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가리킨다. <화순군 제공>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친환경 다원
작은 차
고품질 녹차
한국 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 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강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